



무지개 걸린 4·3평화공원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희생 영령들을 추모하듯 무지개가 걸려 있다.

강희만기자

## “국가 폭력의 역사 더욱 성찰하고 반성할 것”

제73주년 제주4·3추념식이 지난 3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코로나19 사태와 비 날씨 영향으로 참석 인원이 역대 최소인 70여명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추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4·3 완전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연속 추념식을 찾아 4·3영령들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4·3 역사상 처음 군·경 최고책임자가 참석해 국가 폭력의 역사를 반성했다.

>> 관련기사 2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73주년 추념식이 이날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제

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오임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 측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찾았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사상 최초로 군과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

했다.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평화문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군경 최고 책임자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제주4·3 유적지를 소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 특별법 개정 의미 더해 문재인 대통령 2년 연속 찾아 4·3 영령과 유족 위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4·3트라우마센터 승격 약속 군경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첫 참석

개하는 영상 상영, 묵념사, 추념사, 추모영상 상영, 유족 사연 소개,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추념식 날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제임을 통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4·3트라우마센터 국가 센터 승격 등을 약속했다.

오임중 유족회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73년 만에 제주에 흑독한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이 세상이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 해결을 향한 동력을 잃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좌남수 의장은 “잘못된 과

거사 청산과 용서와 화해, 상생,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사연은 대정여고 1학년 고가형(17) 학생이 소개했다. 고 양은 외할머니 손민규(87)씨의 오빠이자 4·3 당시 행방불명된 손돈규(1929년생)씨의 아픈 과거사를 알렸다. 손돈규씨는 4·3 당시 19세로, 1949년 4월 3일 조천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출근했다가 무고하게 체포됐다. 이후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대전형무소로 이감됐다가 6·25 전쟁 발발 후 행방 불명됐다. 손돈규씨는 유족이 대리한 제심에서 지난달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하늘을 잇다  
 마음을 잇다

하늘을 잇다  
 마음을 잇다

초용합 글로벌 공항그룹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 진심을 이어온 한국공항공사

1980년, 대한민국 공항그룹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가장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더욱 가까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공항을 만들겠습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